



고창경찰, 봄철 맞이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활동

고창경찰서(서장 김현익)는 이번 봄을 맞이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안전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고창경찰서는 군내 교통안전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물 개선 및 보강을 할 계획이다. 겨울철 강설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 및 노후화된 교통안전 시설물들은 일제 점검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점검 점검 대상은 노후 및 파손에 의한 교통신호기, 도로 포트홀 등이며 그 이외에도 교통시설물 전 반에 걸쳐 점검하기로 했다. 김현익 고창경찰서장은 "이번 봄을 맞이해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검하면서 좀 더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할 수 있게끔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경찰서, 경찰상 정립 순회 간담회

무주경찰서(서장 빈중석)는 공정하고 청렴한 경찰상 확립을 위해 수사 기능은 물론 교통사고 조사와 같은 범 수 사부서, 지역경찰들이 참여하는 연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 다. 2021. 2. 22부터 시작된 금번 간담회는 오는 3. 5. 까지 코 로나19 방역 지침을 고려 각 분야별 순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최근 경찰 조직내 주요 비위 사례 전과 및 갑질, 음주운전 등 4대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사이동 시기와 맞물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갑질, 부정청탁 등 조직내 잔존비리를 적절하는 한편 기존의 형 식적 교육에서 벗어나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위한 분 야별 토론을 적극 진행 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재전진안군향우회 김중상 부회장, 저소득가구 자녀거 전달

재전진안군향우회 김중상 부회장(동양비닐상사 대표)은 22일 진안군청을 찾아 관내 저소득 가구 자녀들에게 전달 해 달라며 접이식 자전거 25대(1,0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재전진안군향우회 윤석정 회장, 김대섭 수석부회장, 허영창 자원위원장, 최인규 사무국장 등도 같 이 자리했다. 김중상 부회장은 "코로나19 시기로 인해 등교는 물론 친 구들과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번 기부를 하게 됐다"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 식되어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아이들의 웃는 얼 굴을 보고 싶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세계최초 스피로옥신돌 유도체 합성법 개발

원광대 화학과 고혜민 교수 연구팀, 6각 고리 스피로 화합물 합성 반응 확인

원광대학교(총장 박광수) 대학원 화학과 고혜민 교수 연구팀 대학원 생 정명진씨가 키티민(N-2,2,2-trifluoroethylisatin ketimine)의 극성 반 전 특성(umpolung)을 이용한 알릴화 (allylation) 반응과 연속적인 트리메틸실릴 브롬화물(Trimethylsilyl bromide)을 활용한 아자-프린스 반 응(aza-Prins cyclization)을 통한 6각 고리 스피로 화합물 합성 반응에 관한 기초연구 논문을 SCI급저널인 Org. Lett. (Organic Letters)에 주저자 게재 확정을 받았다. JCR 랭킹 상위 5%인 Org. Lett. 저널은 유기 화학 분 야에 매우 권위 있는 학술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정명진 씨는 책임저자인 고혜민 교 수 지도를 받아 주저자로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일반적인 아자-프린스 반응과 차별화되 는 방법을 고안해 실현한 것으로 키티민의 극성 반전 특성을 활용하여 알릴화 반응을 시도하고, 분리과정 없 이 연속해서 아자-프린스 반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원하는 생성물인 6각 고리 스피로 화합물을 효과 적으로 합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응을 세계 최초로 확



정명진씨

인했다. 특히 단일 단계 합성법을 연구한 이번 결과는 제약 분야에서 생화학적 활성에 매우 중요한 골격인 스피로 옥신돌(spirooxindoles) 유도체를 효율적으로 합성하는 방 법을 개발한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아자-프린스 고리화 반응 조건에서 물을 이용한 반응성 향상에 대 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개발된 유기 화학적 합성법은 6각 고리인 피페 리딘(piperidine)을 가진 스피로옥신돌의 합성 반응이 현 재까지 개발된 경우가 없어 새로운 지평을 연 매우 가 치가 있는 연구로 인정됐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계 속해서 입체 선택적인 유기 화학적 합성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그 결과가 기대되고 있 다. 고혜민 교수는 "석사과정에서 국제 유명저널에 논문 을 게재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6각 고리 스피로 화합물 합성 반응 개발은 현재 전문한 상태로 학 문적 가치가 매우 높고, 학부 과정에서 연구에 대한 기 초 능력을 배양한데 이어 석사과정 2년 동안 하나의 주제를 꾸준히 연구해 이 같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남원시 대산면, 화재피해 가구에 온정 전달해

남원시 대산면 발전협의회와 새마을협의회 및 금강마을 주민들은 지난 10일 주택 화재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독거노인 가구에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는 훈훈한 이 웃사랑을 펼쳤다. 이번 성금은 대산면 새마을협의회(회장 이기팔)에서 성금 50만원, 발전협의회(회장 김한수)에서 50만원, 금강마을 주 민들이 십시일반 기부한 447만원 등 총 547만원을 지난 19일 방문 전달했다. 이동현 대산면장은 화재로 위기를 맞은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배운 사회단체와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 으로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행복한 대산면을 만들어 나 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소방서, 영웅 3명에게 '브레인 세이버' 인증서 수여

뇌졸중 환자를 신속·정확하게 평가·이송하여 휴유증 최 소화에 기여한 구급대원들에게 영광의 상장이 주어졌다. 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22일 구급대원 3명(소방장 남 호성, 소방장 장재필, 소방교 전운석)에게 브레인 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했다. '브레인세이버'는 급성 뇌졸중 환자를 신속하게 파악해 골든타임내 병원치료가 가능하도록 이송해 후유증을 최소 화에 기여한 자에게 주어지는 인증제도이다. 이는 구급대원 에게 명예로운 상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응급처치 시행 률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백승기 서장은 "꺼 져가는 생명을 지켜준 분들에게 수여되는 브레인세이버는 그 어느 상보다 명예롭다"며 "위급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 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귀한 생명을 살린 세 명의 의인이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소방서, 현지적응훈련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22일 남원행복의 집을 대상으 로 팀 단위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노인요양시설 특성상 대피가 어렵고 코로나 19 확산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피 유도과 화재진압 등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진행 됐다. 주요 훈련내용은 ▲건물 구조, 거주자 특성을 고려한 대피 ▲자위소방대 편성표에 의한 임무·역할수행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등 자체 피난시설·기구 사용법 ▲거동불편환자 피난·대피방법 등 ▲골절, 배연차 배치공간 확보 등 활용방안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시 대응방법 등 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홍택 회장, 진안군 공직자 대상 통일관련 강연

진안군은 22일 군청 강당에서 김홍택 중국춘조그룹신문사 법인 회장을 강사로 초빙해 '통일을 위해 할 일 많다.' 라는 주제로 공직자들에게 통일 관련 강연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공직 자들이 앞장서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먼저 필요 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통일에 대한 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국립임실호국원, 영현봉송용 임시 유골함 배부

국립임실호국원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국가유공자의 영현 봉송을 위한 2021년도 임시유골함을 호남권의 보존관서 및 승화원(회장장) 21개소에 배부한다. 이번에 배부하는 임시유골함은 '안장 예정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의 화장유골을 국립묘지에 모시고 올 때까지 임 시로 사용하는 종이 유골함'으로 국가가 지정한 유골함에 영현이 이관되기 전까지 사용한다. 임시유골함은 유가족의 안장신청과 동시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으며 2월 18일 서남권추모공원을 시작으로 소모 발생 시 지속적으로 해당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Advertisement for '착한신고' (Good Reporting) campaign.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with hands pointing towards her. The text encourages reporting child abuse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ational Child Helpline (112). It lists signs of child abuse and the benefits of reporting.